

로컬플러스



김제교월동민 화합한마당 개최

김제시 교월동(동장 박상문)과 지역발전협의회(회장 홍종식)는 제8회 교월동민의날 화합한마당 행사를 오는 16일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에는 풍물놀이와 난타공연, 각설이 공연, 중국 하남성 기예단 곡예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동민 체육행사, 노래자랑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해 동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효녀기수 현숙, 소민, 노라 등 초대기수 공연과 각설이 공연 등이 준비되어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펼쳐질 예정이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동민의 날 행사를 계기로 동민들이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AI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올해 동민의 날 행사가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기센터 봄 GAP인증 교육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인과 단체의 농산물 우수관리제도(CAP) 인증 신청을 지원하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GAP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4월 5일에 실시하는 농산물 우수 관리 기본교육은 백산면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200여명의 작목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GAP(농산물 우수관리)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을 임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재해위험시설 현장점검

김제시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범 국가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1일 대형건설 공사장과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시설 2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건식 시장은 금산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장을 현장점검하면서 완벽한 시공과 다가오는 우기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경주시 재난우호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유출이나 붕괴로 진행될 수 있는 민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상태를 수시확인하고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노후공동주택관리 추진

정읍시가 이달부터 폐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감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되고 10세대 이상,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으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다.

사업내용은 육상 방수와 주차장 정비, 도로 포장, 건물 도색, 가로등 정비와 부대 및 복리시설(어린이 놀이시설 등) 보수와 재단 예방사업 등이다.

시는 올해 총 3억 8천 100만원을 투입해 100세대 이상 단지에는 3천만원 이하, 100세대 미만에는 2천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참뽕 4년연속 브랜드 대상

쌀 브랜드 ‘천년의 솜씨’ 와 함께 수상… 특허 출원 등 노력 성과

중앙일보 미디어그룹과 브랜드인터내셔널 글로벌경쟁력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2016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부안 쌀 ‘천년의 솜씨’가 유기농 쌀 부문 대상을 ‘부안참뽕’이 오디(뽕) 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천년의 솜씨’는 지난 2008년 브랜드로 개발·상표등록을 완료하고 지난해 간척지 논 2000ha에 단지를 형성하고 1만4000톤을 생산·출하했으며 연간 약 182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부안 쌀 ‘천년의 솜씨’는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

리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제도인 GAP 인증을 받은 쌀만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전국 쌀 대축제에서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에도 전국으로 농산물품평회에서 우수브랜드로 선정됐다.

‘부안참뽕’은 부안군이 지난 2005년 시양산업이던 양진산업을 기능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선정하고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전국 최초로 신활력 부안 오디 뽕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육성됐다. 군은 부안오디뽕 클러스터 운영 등 5개 단위사업과 부안누에티문 조성, 참뽕연구소 신축 등 50여 개의 특화사업을 추진,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부안누에티문 특구’로 지정됐다.

또 잡곡관련 기업유치 40개소, 참뽕음식점 32개소, 참뽕료·잼 등 우주식품 인증과 협력행사 등 가능성 연구 공모사업을 추진해 ‘부안참뽕’ 브랜드 특허 출원 등 25개의 지적재산을 등록해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부안참뽕’은 부안군이 지난 2005년 시양산업이던 양진산업을 기능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선정하고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전국 최초로 신활력 부안 오디 뽕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육성됐다. 군은 부안오디뽕 클러스터 운영 등 5개 단위사업과 부안누에티문 조성, 참뽕연구소 신축 등 50여 개의 특화사업을 추진, 지난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가 정읍역 광장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옥상에 홍보 전광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양 방향에서 문화관광 지원과 농특산 품 등을 안내하는 영상을 표출함으로써 앞으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시, 고해상도 LED 홍보 전광판 운영

정읍시가 정읍역 광장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옥상에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고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이기 기대에 들어갔다.

전광판은 KTX 정읍역이 개통되면서 전북 서남권 및 전남 장성·담양권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용객들이 크게 증감함에 따라 정읍의 문화관광 지원과 농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규모는 가로 5.3m 세로 2.9m로, 고해상도 LED 팔걸리와 최신형 옥외용 SMD 소자 적용으로 화질이 선명하고

동영상 재생이 용이하다. 특히 양 방향에서 문화관광 지원과 농특산품 등을 안내하는 영상을 표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광판이 설치된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의 통유리 외벽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전광판 외관을 제작해 도심 미관 향상을 물론 문화관광도시 정읍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전광판은 정읍의 문화관광 지원과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등을 동영상 및 그래픽을 통해 하루 15시간 송출하게 되는데, 공익적 내용의 홍보를 원하는 유관기관 등도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광판이 설치된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는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KTX 정읍역 개통으로 정읍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과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층에는 관광안내데스크와 전통공예관, 정읍 문화관광홍보 전시 시설이 있고 2층에는 정읍의 농특산물홍보판매장과 비즈니스룸, 카페테리아가 자리하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전광판이 정읍의 문화관광 축제 등을 생생한 동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정읍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KTX 운행시간에 맞춰 환영인사와 지역홍보자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시장은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전광판이 정읍의 문화관광 축제 등을 생생한 동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정읍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KTX 운행시간에 맞춰 환영인사와 지역홍보자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쌍용레미콘 모범납세 귀감

이영식 대표, 부안군으로부터 유공 표창 받아



일자문화의 부안군 협의회장을 맡아 이탈주민 및 불우이웃돕기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부안군 나누미근농장재단에 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부안군은 유공모범납세자에게 인증서와 함께 3년 간 세무조사 유예, 부안군 고금(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청자박물관 및 누에티문 이용요금 2년 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과 동시에 군민과 기업들에게 성실한 납세의 존경과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아날 현장에서는 양한방 의료봉사와 이미용 봉사, 페이스페인팅, 초콜릿과 디도 및 전통예절 체험 등 20개의 다채로운 재능기부 단체가 참여, 훈훈한 손길을 펼쳤다.

정읍자봉센터, 재능나눔 축제 성료

(사)정읍시자봉봉사센터(이사장 김영대) 주최로 마련된 제4회 정읍시 재능나눔 축제가 지난 2일 연지동 실내체육관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는 김생기시장과 우천규 시의회의장, (사)전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이사장 등 내빈과 자원봉사 단체, 시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양한방 의료봉사와 이미용 봉사, 페이스페인팅, 초콜릿과 디도 및 전통예절 체험 등 20개의 다채로운 재능기부 단체가 참여, 훈훈한 손길을 펼쳤다.

어르신들은 사랑병원과 시립노인병원의 양한방 의료봉사와 전북과학대

미를 더했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재능나눔 축제를 더욱 활성화해 정읍시가 재능나눔 기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